

2008년 6월 27일 금 말씀

남자들은 60대까지 볼을 차야 합니다. 나는 60대에 볼을 제일 많이 찬다고 했는데 진짜로 많이 찼습니다. 방 안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볼을 묶어 놓고 찼습니다. 이때 볼을 제일 많이 찼습니다. 내가 40대 때는 축구할 때 날라 다녔습니다. 건강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.

부모들 아픈 것은 자식들이 책임분담을 못한 것입니다. 90살 정도 되어서 아픈 것은 모르지만 그전에 아픈 것은 가족들이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. 좋은 약도 자꾸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야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. 50대60대에도 사람들이 잘 쓰러집니다. 그러니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.

해외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도와줘야 합니다. 해외자체로만 하면 맛을 잃어버립니다. 물론 그 나라에 맞는 식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맛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.

직장인들 전도할 때 다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신앙생활 하면 정신적인 세계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신앙관만 넣어주면 됩니다. 돌아다니기 힘들면 ‘하나님’ 하고 한번 부르는 것도 신앙입니다. 비전문가들은 직장 다니면서(교회 안 나와도) 신앙 생활하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. 여러분은 지금 한참 펴 때입니다. 나는 20대 때는 돌도 깨물어 먹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신앙의 감각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.

운동하는 선수가 머리를 다쳐서 못쓰게 되면 그 대신 손발이 날라 다녀야합니다.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빠른 구름을 타십니다. 무엇이든 퍼뜩퍼뜩 부지런히 감각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.

해외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10명 건들지 말고 딱 한명 만 만들어 그 사람에게 너에게 희망을 건다고 해놓고 다음에 올 땐 뭔가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맡겨야 됩니다. 한국 사람은 맡기면 잘 하는데 외국 사람도 맡겨야 잘 합니다. 외국에 있으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국 사람들 외국에 관광하고 오는 것하고 거기서 생활 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고 힘들다. 그러니 잘 살펴보고 도와줘야 합니다. 애들은 절대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. 죽어도 안 합니다. 그러니 그런 걸 잘 살펴서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선교할 사람도 도와주고 하십시오. 얼마 안 도와줘도 됩니다. 교단에 이야기하면 도와줄 것입니다.

잘 받쳐줘야 합니다. 볼을 찰지라도 옆에서 잘 받쳐줘야 됩니다. 받쳐주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. 섭리는 볼 차는 것과 똑 같습니다. 받쳐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입니다. 한국축구는 진짜 답답합니다. 공격을 하면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해야 확 들어가는데 각자 공격을 합니다. 전체가 뭉쳐서 밀어붙여야 합니다. 월드컵4강에 들어간 것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. 월드컵 하기 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지내라고 10년 전부터 내가 이미 예언 했었습니다. 내가 하나님께 ‘월드컵에 넣어줄게’ 음성 듣고 그때부터 일본에게 축구하라고 한 것입니다. 어떤 일을 할 때 본인 들은 잘 모릅니다. 지나간 다음에 아~ 이렇게 했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. 하늘 뜻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뜻을 잘 생각합니다. 나부터도 내가 가는 길은 잘 모릅니다. 다 가보고 난 후에 압니다. 유럽에 있었을 때도 후에 아~이래서 내가 유럽에 갔다 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.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느껴집니다.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막 밀어붙여서 하기 때문입니다.

일을 할때 지도자들이 뛰어들어서 해야 모두 따르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합니다. 밀에 사람한테만 시키면 맨날 죽기만 합니다. 전쟁터에서도 지도자가 ‘야! 싸우자’ 하면서 앞장서서 나가야 전체가 확 밀어붙이는데 지도자가 지시만 하면 무서워서 못합니다. 옛날에 장수 한명으로 다 움직여 나가지 않았습니까? 지도자가 뛰어들어야 따르는 사람도 다 뛰어드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승리하는 법입니다. 바깥에서 외국지휘하고 다닐 때는 너무 힘들어서 과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과로가 없어지고 건강해졌습니다